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중원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새 가족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 (요일 3:18)

처음 오셨나요? 새가족부로 오세요!

전 성도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돌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5:4)을 가지고 교회 주변과 삶의 현장에서 11전도를 통한 빛과 소망(마 5:16)의 역활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의 열매들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천여 명 이상의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이미 함께 십자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눅 15:7).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기쁨입니다(요 1:2).

이처럼 많은 새 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새 가족 운영관리실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실장으로서 직접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으며, 등록부와 양육부로 나누어 더욱 온전히 새 가족을 섬기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오면 가장 먼저 새 가족 등록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새 가족 등록실에서 기본적인 안내 절차를 마친 뒤에 새 가족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기존신자의 1주과정의 적응반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소개를 받고 다음 주일부터 곧바로 교구나 그 밖에 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는 조금 다릅니다. 6개월 과정의 양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양육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달으며, 은총을 사모하는 새로운 피조물로(골 5:17)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학습 및 세례를 받아 교회의 한 지체로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 가족부에 출석하여 양육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새 가족 등록부실에서 통신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 가족으로 등록하면 곧바로 새 가족이 사는 지역을 섬기는 교구 교역자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사로 은총을 받은 자녀들입니다(엡 1:7). 따라서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총을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 에 있는 새 가족들에게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 3:10).

*다음주일(24일) 찬양 예배시 2005년 제2차 학습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사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릴움)

"모든 것의 기초, 기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행 8:22)

새로운 생명이 파르파르 돌아나는 봄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지 그 기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막 9:23).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라를 시작하시고, 삼차체가 기도인 것처럼 말씀합니다(눅 6:12).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도 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대 대해 크게 오해한 것이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을 지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십니다(마 26:39).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성직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니다. 또한 모든 기도회에도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매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선교회회를 통해서 복음증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구역 예배 후 갖는 기도시간이 더욱 성령의 은사로 뜨거워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우리의 구역이 기도로, 우리의 교회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행 2:8). 지금 곧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행 8:15).

위임 목사 동정

위임 목사님은 단기선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가셨습니다.
(2주) 은혜가 넘치는 일정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1)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고 가르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까(벧전 1:3).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쫓아 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롬 1: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온전케 하며 함이니라"(딤후 3:16, 17). 성경의 역할은 온전케 하도록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총의 자녀,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드십니다(막 1:37).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요 1:12).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풀고 적용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성경을 함부로 인용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 백성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말씀 담게 드러내어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자의의 욕심에 말씀을 갖다 붙여 이시마(행 16:17)를 양산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말씀을 도용하는 거짓말을 해서 안 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 안에는 말씀이 없고 교회 성정만 있습니다. 말씀은 적당히 밀쳐두고 교회 부흥만이 말씀의 본질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 축복하신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부흥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골 1:28). 이런 점에서 볼 때 말씀은 아모스 때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마 8:11). 하나님의 말씀이 수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조롱을 받고 있는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니겠습니까(5:12)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요 1:1). 성도는 말씀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말씀이 거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사라지고 하는 데까지 사는 사람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는 은총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요 1:14). 성경속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자기를 부인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마 7:13).

STUBBORN AS AN OX

(12) While thus engaged as I was journeying to Damascus with the authority and commission of the chief priests, (13) at midday, O King, I saw on the way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sun, shining all around me and those who were journeying with me. (14) And when we had all fallen to the ground, I heard a voice saying to me in the Hebrew dialect,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It i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goads.' (Acts 26:12-14)

When Paul returned to Jerusalem, after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the Jews in Asia stirred up the synagogue crowds forcing the Romans to arrest him. In today's Bible verses, he stands before King Agrippa and many other prominent authorities in defense of the charges brought against him. Instead of defending himself, he talks about Jesus Christ. In his address to the king, he proclaims the gospel message. He tells the king the story of his zealous Jewish upbringing, which naturally led to his hostility toward Jesus and His followers. His outrage was so intense that he sought to punish the saints in foreign cities under the authority and commission from Jerusalem's chief priests. On one such journey, from Jerusalem to Damascus, a bright light stopped him. He retells the incident, "at midday, O King, I saw on the way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sun, shining all around me and those who were journeying with me. And when we had all fallen to the ground, I heard a voice saying to me in the Hebrew dialect,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It i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goads'" (vv. 13&14).

A special light from heaven forced Paul and his companions to the ground, but only Paul sustained physical damage. His eyes lost their ability to see. His companions saw the light, to be sure, "but did not understand the voice of the One who was speaking" (Acts 22:9). Jesus spoke to Paul in his native tongue. "The men who traveled with him stood speechless, hearing the voice but seeing no one" (Acts 9:7). Paul understood the words of Jesus very clearly. In that moment, they destroyed his religious faith, pride, and self-consciousness. He laid on the ground powerless, needing his companions to lead him the rest of the way to Damascus.

Interestingly, Jesus used a Greek proverb for useless resistance in his talk with Paul. Goads were long, wooden rods with a sharp point used to prod oxen while plowing. Jesus was telling Paul that it was useless for him to persecute the church—he was only hurting himself. In other words, Paul was acting like a stubborn ox. His religious pride closed his spiritual ears and eyes, making him senseless. In thinking he was righteous by kicking against Jesus, he found himself blind and helpless. Jesus punished him, but did not kill him. Without Jesus, this stubborn ox had no value, but with His guidance and teaching, this brute had great potential. If he obeyed, he could be useful. If he repented, he could serve the Son of God. There was no escape. He had two choices: stay a stubborn ox and die or obey Jesus and live.

Jesus handled Paul with a goad because he did not follow His gentle coaxing through His Word and Spirit. He did not listen to His preachers and teachers. He did not act upon His love and grace. Paul believed in Moses' law, and Moses' law condemned him as unrighteous. Jesus showed him the truth and handled him with righteous judgment, so that he could see for himself that he was not righteous. Sometimes Jesus makes you lose a friend or family member, and sometimes He allows inescapable sickness and affliction to overcome you, almost to the point of death. He handles

you with goads because you ignore the Gospel. You laugh at sermons. You distort God's love. You close your ears to the preacher's cry for you to come to the cross. You close your eyes to the sin that is killing you, and make no effort toward repentance. You persecute God's children. You willfully sin, and continually kick your feet against the goads of God.

Through this hardness, if you listen, there is a great plan. In the present, you are unhappy, stressed, tired, and your heart feels like it can burst. The future is also difficult because you will regret your sins and suffer many, many times for them. Paul repented and confessed that he was a master sinner, the least in God's kingdom,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and not fit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1 Cor. 15:9). He died everyday for Jesus. He cried all the time, hearing the bad news about himself while trying to preach, "but only they kept hearing. He who once persecuted us is now preaching the faith which he once tried to destroy" (Gal. 1:23). The people who heard about Stephen, and the families separated and destroyed because of his persecutions were strong barriers to overcome. Even so, his future held great promise because of Jesus. Jesus gave him the strength to endure all hardships for His namesake. His training was hard, but Jesus prepared him to face the trials ahead.

Paul explained to the king the heavenly vision that changed his faith from Jewish to Christian, and made him a minister and witness to it. In describing what happened to him, he revealed God's salvation plan for all people (see Acts 26:18). He testified that what the Prophets and Moses said was going to take place; "that the Christ was to suffer, and that by reason of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He would be the first to proclaim light both to the Jewish people and to the Gentile," actually happened (Acts 26:23). He did not believe it when he first heard about it because he was stubborn and stupid, but now he knows it is the truth and can do nothing but proclaim it.

My dear friend, if you are against the gospel, the grace of God, you are stupid. Please come to Jesus. He loves you greatly. Do not be stubborn as an ox. I do not want you to receive more punishment, so please listen to His heavenly voice. He will talk to you in your own language. Stop making excuses and deny yourself. There is no escape from reality, which is either salvation or death. Paul said,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strengthened me, because He considered me faithful, putting me into service, even though I was formerly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aggressor. Yet I was shown mercy because I acted ignorantly in unbelief; and the grace of our Lord was more than abundant, with the faith and love which are found in Christ Jesus" (1 Tim. 1:12-14). Paul chose Jesus, and received His mercy because he listened and obeyed. He changed from a stubborn and stupid ox into a humble and faithful servant of God. What an amazing grace! 

다음 주일 설교

황소처럼 고집 센 바울을

“⁽¹²⁾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¹³⁾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¹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행 26:12-14)



김성파 목사

은총의 빛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선포하는 바람에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그라바 왕과 여러 유령 인사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변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엄격한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배척하는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찾아내 진멸하려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위임장까지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때에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바울을 뒤쫓아 왔습니다. 바울은 그 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13,14절)

הללו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이자 바울과 그의 일행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바울만 해를 입었습니다. 그의 눈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행 22:9). 예수님은 바울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행 9:7).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믿음, 자긍심, 자의식을 송두리째 없애버렸습니다. 바울은 험없이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것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시채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 속담을 빌어 바울의 뜰에 없는 고집을 일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가시채는 𐤀𐤓𐤕𐤕 가시가 박힌 기다란 나무 막대기로, 밭을 갈 때 소를 재촉하기 위해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해를 입는 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우매하고 고집만 센 황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자긍심은 바울의 눈과 귀를 막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견어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자신은 무리하면 눈먼 장애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바울을 징계하셨을 뿐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고집분푼 황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인도와 가르침만 받는다면, 이 우매한 짐승은 앞으로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순종한다면, 그는 쓰임받을 될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술을 먹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다 그대로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항복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바울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가시채로 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드럽게 다루어질 때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낸 설교자나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믿었고, 모세의 율법은 그를 불의한 자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친구나 가족을 빼앗아 가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강행할 수 없는 질병으로 여러분의 숨통을 조입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가시채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

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왜곡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설교자가 부르짖으면 아예 귀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는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채 회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핍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시채를 뒤발로 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가시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주님께 향하게 된다면,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있고, 가슴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불행하게 보입니다. 미래 또한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후회하고, 거듭 되뇌이며 괴로워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의 과수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참회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도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전 15:9). 바울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 들려오는 나쁜 평판 때문에 울어야 했습니다. “난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재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바 함을 듣고”(갈 1:23). 스테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바깥으로 인해 흠이되고 파괴되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이들은 정말 바울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격게 될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훈련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이 그 시련을 정면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아그라바 왕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어떻게 자신을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송두리째 바꾼바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그 신앙을 전하는 자유 중인으로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혀 말했습니다(행 26:18 참조). 그는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예언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언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바 시리라” 하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행 26:23). 바울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그는 완고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즉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다. 황소같이 뜰에 없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을 부리면 더 많은 매를 맞을 뿐입니다. 그러나 헬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이 아니면 죽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부는 하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행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던도 이제 그 공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리 때에 달리 죽었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 1:12-14). 바울은 예수님을 땀했습니다. 그는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공물을 입었습니다. 미련하고 고집 센 황소였던 그가 겸손하고 충성스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

장로 칼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온전한 회개감사

“...그 중들의 주인이 돌아와 지복과 회개할새”(마 25:19)



박흥규 (감사위원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마 25:14-30)을 보면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기 일을 맡겼다. 이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를 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다. 주인은 그 두 종을 칭찬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것을 고스란히 내어놓았다.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주 안에서 회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류(11)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섬기고 있다.

우리 교회가 회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는 교회 내부에서 먹는 예산을 절감하여 선교에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산이 있어도 실제 일할 때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며 교회에서 자금을 수령한 후에도 실제 필요한 금액만 지출하고 잔액을 다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에 반환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모든 교우들이 이해하고 협조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이 교우들에게 특별한급의 부담을 주지 않고도 많은 단기 선교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언 2화에 걸쳐 장학금을 많이 지출하고, 교회 건물과 중요한 시설들을 보수 개량 교제하고 오려야 교제는 전보다 더욱 튼튼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전파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장로님, 안수집사들이 교회의 재선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서 기도하시며 시간을 내어 삼시끼고 열심히 봉사하시니 더욱 감사하다.

최근 수년간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지출하는 부문은 선교이다. 2004년 실제 집행된 선교비는 3년 전인 2001년도의 선교비에 비하여 약 5배로 늘었다. 경성회계 총 지출에서 선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는 약 4배로 늘었다. 단기 선교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회계감사를 거쳐져 되는데 거의 모든 팀들이 잘 협조하고 있어서 감

사업무 수행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받는 일이 장기전 지체된 팀들이 1~2%가 되었던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팀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회계를 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 오히려 선교하는데 방해가 되서는 안 된다. 반대로 형식 없이 자유분방하게 회계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회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단기 선교사와 선교팀들이 파송된다. 이미 현재도 많은 팀들이 선교를 마친 상태이며, 선교 중인 팀들도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직무도 많아지고 감사위원회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의 직무가 많아진다는 부담보다는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나라에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감사하다. 금년에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의 선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선교팀장과 회계 담당자뿐 아니라 모든 선교팀원들이 교회의 회계 원칙을 잘 이해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회계보고를 이루어도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히 3:6).

또한, 선교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와 기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사용되도록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협력해야겠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 받는 모든 일꾼들(딤후 2:15)이 되길 원한다. 무엇보다도 회계감사의 일을 맡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사랑하는 후배에게

살롬! 잘 지내지? 내가 청년부에 다시 나가면서 새로운 활기를 얻는 것 같아 정말 보기 예 좋다. 아마도 내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것을 못 참는 것 같아. 그것이 생명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사랑하도록 만들지,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다. 언니도 새가족부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기쁨을 느낀다. 말씀을 듣고 성령하는 그들의 모습이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론 그들의 고인 속에서 나도 힘들기도 하고 성령하게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괜히 혼자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주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다. 너도 그렇지? 참, 지난 주일 통과하면서 거듭님과 구원 그리고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 전와 끊고 나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 오한복을 강해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그 모든 내용이 일시에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어 편지를 쓴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유신의 부모가 모든 영적인 부모가 있다고 설명하고 계셔. 영적인 부모는 말씀과 성령이다. 우선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가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신다는 것이지. 오한복을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시잖아. 물론 우리가 받는 물세례를 의미하는데 물세례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주님을 믿기 전에 행한 나의 죄악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았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설명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림에 비유하고 계시오(요 3:8). 바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 바림은 존재하고 그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표현하시어(엡 2:4).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바림으로 표현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야(요 20:22). 그리고 생령은 우리 안의 옛 자아가 부서지고 흔들리고 산산이 깨어지게 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 그리고 생령의 바림은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 능력, 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적인 주님의 일이지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그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전도를 왜 해야 하는 걸까? 주님 만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 때문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명함이기 때문인가? 목사님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거듭님과 연결시켜서 성령으로 대대히 주시고 계시오(3:6). 우리가 영의 부모로 거듭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육의 부모가 아닌 영의 부모의 형상을 닮아 수복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신의 성령에 참여하는 자(베후 1:4)! 음~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표현이지 아니? 주님에게 우리를 위해 애산하는 고통을 담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와 성령에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그를 돕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바울이 고백(갈 4:1)한 것처럼 우리도 애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거듭난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지. 참으로 주님의 은총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종략...)

그 편지를 읽는데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야.

이 말씀이 정말 좋아서 쓰는 데 전혀 힘들지 않았지만 너는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읽는 데 힘들겠지. 주 안에서 강건하고 좋은 말씀 지체들과 은혜를 나누길 바란다. 늘 애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임정섭 (새가족부 교사)

*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부 선생님이 월요 새벽 기도회 ‘오한복을 강해’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후배와 나누는 편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7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1968년 G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고국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딸 둘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라고 권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의정부의 실공장에서 일하며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정부에 있는 동료들이 저를 충현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에 동향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충현교회에 나왔습니다. 1998년부터 교회에 나오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을 때 예수그리스도가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아프리카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병이 낫기를 위해 선생님과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실공장에서는 주일에도 일을 하라고 강요하며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여서 포천에 있는 원단 공장으로 직장을 바꾸었습니다. 포천에서 교회를 오는데 3시간 이상 걸리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여 몸이 피곤하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좋아서 이 모든 것이 힘들어도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천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저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포천지역 리더가 되었습니다. 포천지역에 있는 동향 사람들에게 전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큰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보다 잘하고 공장에서 사장이며 월급도 많이 주셔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고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국은 땅이 넓어서 수도나 큰 도시에는 교회가 조금 있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절에 가서 붓다에게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고국의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심기고 싶습니다.

충현교회 외신부에서는 설날과 추석에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계속되는 수련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충현교회에 나온 지 6년이 되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남편과 딸들도 고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지인 선교사 준비생)

유 서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의 육체는 죽지만, 나의 영혼은 예수님 곁에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22년 동안 살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간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한 일 없고 막 산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갑니다. 22년 동안 주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

가족, 친구들...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볼 것을 소망합니다.

“주가 주신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받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 주의 곁에서 서서 주를 뵈오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 손의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들, 정말,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p.s. 김혜련 언니, 김아람, 이은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들도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 이 유서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쓴 것입니다.

이 유서를 쓴 사제는 은혜 가운데 선교를 마쳤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언어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현지인 앞에서 외운 것을 사용하려 하니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 주님 없이인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하지만 두 번째 사역을 나갔을 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많이 되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다. 또한 기쁨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드릴 때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은 어린 영혼들이 우리가 나누어 준 찬송가를 보며 함께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조금 서툴고 제대로 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밝은 표정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불렀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찬양으로 말해주었다.



오찬양 (고등부)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4월 4일(월) - 4월 12일(화)	8교구 3지역	박승근	4월 6일(수) - 4월 15일(금)	14교구 3지역	이정택
4월 5일(화) - 4월 15일(금)	12교구 2지역	조준수	4월 6일(수) - 4월 15일(금)	11교구 1지역	김인술
4월 5일(화) - 4월 15일(금)	1교구 3지역	구원섭	4월 7일(목) - 4월 16일(토)	13교구 2지역	김선진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4월 11일(월) - 4월 20일(수)	13교구 6지역	강진혁
4월 12일(화) - 4월 21일(목)	3교구 2지역	김희선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4월 18일(월) - 4월 27일(수)	15교구 4지역	박종태
4월 19일(화) - 4월 28일(목)	13교구 4지역	임재봉
4월 19일(화) - 4월 30일(토)	1교구 7지역	이부성
4월 21일(목) - 4월 29일(토)	12교구 4지역	정현근

예수님이 부르시면 일어나 가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따르는 유아부의 믿음 5만은 네 살배기 친구들에게
요. 4월 10일 주일, 우리 친구들이 분반공부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
울이는지 볼까요?

선생님 :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집은 편안하고, 따뜻하구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 손들어 볼까요?

친구들 : 저요~ 저요!

선생님 : 와! 그렇구나. 그런데 이 그림(빌립이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을 볼까? 여기
있는 이 빌립은 하나님께서 예수살렘을 떠나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빌립에게 이 그림처럼 너무나 초라한 광야 '가사'로 가
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
울까요?

친구들 :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선생님 :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싫은 곳으로도 인도하세요. 순종하기 어려
웠지만, 빌립은 순종했어요. 이번에는 이 그림(내시에게 빌립이 말씀을 전
해요.)에서 빌립을 찾아볼까요? 빌립은 어디 있었을까요?

친구들 : 여기요. 여기에 있어요. (친구들은 빌립을 참 잘 찾았어요.)

선생님 : 잘 했어요. 가사로 가는 길에 여기 이 내시를 만났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심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을 내
시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왜 심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죠?

친구들 : 우리 죄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리켜요.)

선생님 : 맞아요. 선생님의 죄, 우리 남입이, 승현이, 연수, 지수, 지유, 재영이, 유진
이, 은원이 등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내시
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빌립이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순종 안 했기 때문일까요?

친구들 : 순종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선생님 : 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준이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자 이렇게, 예
수님이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서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겠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자.

친구들 : 저요, 저요, 자신 있어요.

선생님 : 우리 친구들 예수님 어떻게 전하죠? 하나, 둘, 셋 하면 해보자. 하나, 둘, 셋!

친구들 : (큰 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

선생님 : 참 잘했어요. 모두 순종하는 일꾼으로 자라나길 기도할게요. 자 이제 마지
는 기도하자. 예쁘게 기도 손 모으세요.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
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이 순종하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말
씀이 우리를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시고, 마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
을 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 아멘.

이미나
(유아부 교사)



은혜로운 차량안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출현의 성도들과 제일 먼저 대면하기에
차량안내부 봉사자들은 주일마다 오전 9시 15분에 차량안내
부 경전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믿
음 가운데 굳게 서며 정말로 헌신된 봉사자가 되기 위해 더
욱더 기도합니다. "아무 일에도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
고"(빌 2:3).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으로 출현의 성도님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로운 차량 안내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봉사자의 안내에 잘 협조하며 서로가 은혜
를 받음으로써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감사가 넘쳐 남을 감사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성도가 규칙에 어긋나는 주차를
하거나 안내에 따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인내하며 더욱 봉사
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 내의 차량질
서를 통하여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
희들의 부족한 점도 있지만 차량안내부의 인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셔서 더욱 은혜로운 주일이 되며 신령한 예배를 드리
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
여 섬기려고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봉사하실 성도님들은 차
량안내부로 찾아오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화(차량안내부)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난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 예고를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무시해서 더 묻지도 못
했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수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고를 들었고, 실제
로 살아나실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기록
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저렇
게 슬퍼만 하고 있을까 생각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은 내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내가 완악하여 내 속에 나의 것
들로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이구나.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심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내 마음 속에 두지 않고 그저 나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슬픔만을 가지고 도취되어 있을 때 주님을 생명의 부활로 주님 밖에서 만나지 못하고 향품을 들
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인영이 되었구나. 믿음이 있었고,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가 있었는데 아
직도 나의 부활없는 욕심과 기대와 자존심은 격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
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게 믿음이 없는 탓에 주님을 무덤에서 다시 못 나
오실 분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어렵고 낙심될 때 나의 삶과 환경을 돌아보게 마시
고 오직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말씀으로만 나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경미(청년1부)

교회탐방 60 고등부 학교 전도(천부장)

믿음의 종 천부장

우리의 교회 고등부에 용감한 주의 군병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의 이름은 백부장(이)가 아니라 분명 천부장(중 18:21)이다. 이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천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가 되기를 꿈꾸는 당찬 학생들이다. 어쩌면 이토록 저절적으로 용기 있는 장수들이 있는가? 그들 천부장들을 만났다.

천부장이란?

학교 안에서 천 명의 그리스도의 군병을 거느린 장수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고등부에는 36개 학교에 파송된 36명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새학교, 김예진)

각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우리 학교는 불교 학교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럼수록 모임을 자주 가져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까. 때로는 목사님과 선생님께서 방문하시기도 합니다. 현재는 10명 정도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진선여고, 이송이)

점심시간에 선우배가 알개 오면 30분 정도 친교하고 때로는 새신자를 환영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방문아서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명의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은광고, 이지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우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새학교, 강재우)

전도할 영혼에게 접근해서 일단 가차고 권유합니다.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들에게서 그 미친 이유를 말하며 그때야 안에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이 있다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 줍니다. (참성고, 박성진)

학교 안에서 천부장의 몫은?

학교 안에서 두 세 사람이 모여 알려함으로서 학교 내에 천부장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선여고, 이송이)

나로 인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고, 장진호)

고등부 시절을 주 안에서 보내야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인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경인고, 조현아)
비록 지금은 불확실이나 가장 적합한 판단틀을 찾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시절을 주 안에서 보내야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구교고, 조현우)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선택해야하는데 그러자면 고등학교 때 전공을 잘 선택하여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선여고, 이송이)

천부장으로서 특별하게 노력하는 점은?

전도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백영고, 엄승기)

성경을 열심히 읽어 영적 믿을 얻으려 합니다. 요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진선여고, 유진아)

천부장을 하면서 느낀 보람은?

선교지에 가 보니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곳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담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천부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데에 가서도 선교를 하는데 왜 학교에서 친구한테는 전도를 못 하느냐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은광고, 김대혁)

선생님들이 중점을 두고 지도하시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가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진경 선생, 양영근 선생)

공동체의 이름은 그 공동체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한다. 천부장이란 이름을 걸고 각 학교에 파송된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용감한 계명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고등부의 천부장들이 그 명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곡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찬송이다. 그 이유는 이 찬송이 행방 전까지 우리 나라 애국가 곡으로 사용돼 왔던 "AULD LANG SYNE"곡과 결합해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이 곡은 스코틀랜드에서 주로 해럴리 때 부르는 민요이다. 이 곡은 윌리엄 쉬드(William Shield)가 곡을 썼고,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 목사가 작사한 것을 일본판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1절은 시편 88편 9절 "여호와여 내야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손을 들었나이다"의 부르고이상이 비통이 되어 위함과 공경에서 주의 도를 배에 의지할 것 없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노래한다. 주께서 만일 떠나면 우리는 영령 바리온 자가 되어 죽게 되는 것이다.

후렴은 구약 시편에서 받은 영감을 신약적인 이미지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는 아무 공로없이도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찬양한다.

2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의 위대함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 세상의 죄를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한함을 찬양한다.

3절은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구원 받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찬양한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없다. 오늘도 우리는 두손들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고개배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찬양원희)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반호	성명고구	소속부서	인도자	반호	성명고구	소속부서	인도자	반호	성명고구	소속부서	인도자	반호	성명고구	소속부서	인도자
1082	김진호	7 장년부	여진호	1106	남창지	2 장년부	박순선	1130	김진호	8 장년부	김은혜	1154	해기	9 장년부	
1083	박재민	2 장년부	정장호	1107	최미리	16 장년부	이은진	1131	이연남	9 장년부	김은혜	1155	정영명	19 장년부	
1084	김성민	11 장년부	김은혜	1108	박정호	5 장년부	전순재	1132	박정호	5 장년부	홍창희	1156	해기	19 장년부	
1085	이현준	16 장년부	조종우	1109	김재수	1 장년부	오승환	1133	이연남	9 장년부	정영명	1157	이연남	19 장년부	
1086	유희영	9 장년부	이영환	1110	주현미	9 장년부	남영환	1134	배준호	9 장년부	오승환	1158	이연남	19 장년부	
1087	손준호	2 장년부	박종호	1111	김진호	1 장년부		1135	정영명	9 장년부		1159	사라	19 장년부	
1088	정창호	9 장년부	홍창희	1112	노보나	1 고등부		1136	최기영	9 장년부		1160	채복	19 장년부	
1089	김성민	9 장년부	김은혜	1113	김진호	1 장년부	김영환	1137	정영명	9 장년부		1161	정영명	19 장년부	
1090	이현준	16 장년부	박종호	1114	정영명	5 장년부	김영환	1138	김진호	10 장년부		1162	해기	19 장년부	
1091	이현준	12 장년부	정창희	1115	정영명	5 장년부	박순선	1139	정영명	9 장년부		1163	정영명	19 장년부	
1092	김진호	9 장년부	이영환	1116	정영명	9 장년부	이은진	1140	정영명	9 장년부	윤영환	1164	해기	19 장년부	
1093	김정호	9 장년부	김영환	1117	정영명	9 장년부	이은진	1141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65	정영명	19 장년부	
1094	김정호	9 장년부	정창희	1118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42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66	정영명	19 장년부	
1095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19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43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67	정영명	19 장년부	
1096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0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44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68	정영명	19 장년부	
1097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1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45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69	정영명	19 장년부	
1098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2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46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70	정영명	19 장년부	
1099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3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47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71	정영명	19 장년부	
1100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4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48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72	정영명	19 장년부	
1101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5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49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73	정영명	19 장년부	
1102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6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50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74	정영명	19 장년부	
1103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7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51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75	정영명	19 장년부	
1104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8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52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76	정영명	19 장년부	
1105	정창희	9 장년부	정창희	1129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1153	정영명	9 장년부	정영명				

※ 송진경교회와 한 기독교회를 위하여는 본분 봉양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3희월례회
일시: 20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별세

1. 이재순 태교집사 정운을 집사의 모친, 이순자 집사의 시모, 18교구 / 13일 별세, 15일 장례

결혼

1. 이정훈 군 (이흥래 집사, 이삼진 집사의 아들, 태교집사 김진경 양 (김형기 집사, 김한기 집사의 딸, 2교구) / 23일(토) 1300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 박종환 군 (박양구 씨, 이정균 씨의 아들)과 손은영 양 (이재훈 집사의 딸, 4교구) / 23일(토) 1430 사초제당 홀 2층 무비홀

◆ 전도회 임원 영성 훈련

일시 : 4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갈릴리움
대상 : 각 전도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전도부장
강사 : 류병희 목사 외

◆ 중현전도대원 훈련

일 자 : 3월 16일(수) ~ 5월 4일(수)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30
장 소 : 베다니홀

2005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4월 17일 (오늘)	1교시 15:00~15:50	기독교교요 (임원학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관?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관? (안치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4월 24일 (다음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오후 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석바람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석바람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주일)
설교자/기도자	임현덕/조종환	이희석/김철남	최종철/최민식	하종철/박광석	안치원/현준봉	정종신/윤인숙	이재영/현영준

예배담당 안내 (4/20~4/24)

날짜	예배	찬양	사회	기도	설교
4/20	수요 I	주 예수여 은혜를 (호산나 찬양대)	이성진	김덕민	신영환 지혜와 총명 (골 1:9-14) 김동덕 목사
4/20	수요 II	내 마음 주께 바치자나 (설교대 찬양대)	하종철	이금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벧전 1:3-12) 윤수일 목사
4/22	금요집회	소프라노 류승연 테너 이상훈, 임미수, 윤영애 찬양대	임현덕		세례 요한의 믿음 (요 3:22-30) 류병희 목사
4/24	주일 I	(예배 전 찬양)	이재영	원용철	왕초처럼 고집 센 바울을 (행 26:12-14) 최성규 목사
4/24	주일 II	이 세상의 친구들 외 그리스도아 류승연(아련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익원	김준선	왕초처럼 고집 센 바울을 (행 26:12-14) 조규호 목사
4/24	주일 III	저 장미꽃 위에 이슬과 비가 내려라(말라기 3:17) 오케스트라	류병희	김연진	왕초처럼 고집 센 바울을 (행 26:12-14) 안창덕 목사
4/24	주일 IV	내 진정사모하는 외 소프라노 김희영(아미아 찬양대, 솔로리스트)	여국진	이성호	왕초처럼 고집 센 바울을 (행 26:12-14) 임현덕 목사
4/24	주일 V	돌아와 돌아와 외 소프라노 이은주, 테너 유준(별반 찬양대, 솔리스트)	김종환	황영일	왕초처럼 고집 센 바울을 (행 26:12-14) 안창덕 목사
4/24	주일찬양	할렐루야 찬양가브리엘 찬양대	위건환	배춘식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벧 2:5) 정현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1:00(국외 동시복음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구분	시간	차량
교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일출반
금요찬양	오후 11:00	금요집회후 본당 앞 출발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중동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중동 4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성남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망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배다부	오전 9:00(마침)	교육관 207호
	오후 1:00(상선)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가족목회	오후 12:15	베다니 홀
중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전도생애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제학교입석교부	오전 11:00	아넬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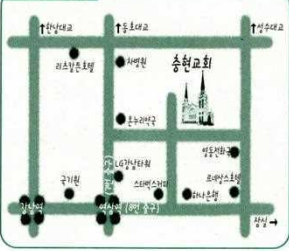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beon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4월 중현 가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 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중현의 모든 창치기와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4.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모든 위원회와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을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7. 수요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전도원훈련을 통해서 중현의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8.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중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교회 요지는 길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진호	노광현	오전국	이병학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영철	이훈	남선우	김영길	김종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최무길	이창호	차선득	김광남	이종석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안종욱	임두원	이광재	전종용	전종필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이상우	김단우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한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구경	최용수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재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영달	이성호	최지호	노영환	박철규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정정길	신상수	고계승	강현철	김영은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이달우	정철환	김승곤	함철주	윤석민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정성현	안석현	김연진	김창국	김종선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여국진	안창덕	나영환	정진호	김종덕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고창환	위건환	김익원	장훈	이현덕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이희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종신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안재홍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이경준	이창수	김진호	윤수일	황전섭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정성영	이정훈	김태식	김성훈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 어전도사

정영희	신동자	윤운수	한영준	김연식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홍순애	이옥주	김달자	안태준	김정현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조옥자	강덕별	최희선	전은희	김영순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김장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한성일	임태주			
2교구	2교구			

■ 찬양감독 강영구

■ 전담지서자 서순성

■ 전담목장자 김소연

■ 설교 사요환한